

「자료집」
**충청중국포럼 출범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지방차원의 한중교류 협력 방안

일시 : 2015. 5. 21.(목) 14:30

장소 : 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당진·당진

목 차

1. 행사프로그램	4
2. 기념학술세미나 안내	5
3. 제 1분과	7
1)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 강희정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9
2) 철강도시의 미래 -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25
4. 제 2분과	39
1) 아산시 대중국 교류 협력 현황 - 아산시	41
2) 보령머드 '중국경제' 속으로 - 보령시	61
5.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소개	75



INVITATION

‘충청중국포럼’ 출범기념식 및 학술세미나 초대장

지방 차원의 한중 교류 협력 방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 당진시가 공동 주최하는 충청중국포럼 출범 기념식 및 학술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충청남도는 황해 바다 건너 중국과 마주 보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기초로 허베이성,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을, 지린성, 랴오닝성, 산둥성 등과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시·군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대응이란 측면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편, 충남의 대(對)중국 수출액 비중은 46%로 우리나라 전체 수준 26%보다 월등히 높고, 홍콩, 대만, 마카오를 포함한 대(對)중화권 수출 비중은 64.5%에 달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뉴노멀(新常态, New Normal)’과 ‘신 실크로드(一帶一路)’ 건설 등 대(對)중국 정책환경의 변화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온·오프라인 양면으로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12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I. 행사 프로그램

□ 개회식

시 간	주 요 내 용
14:3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및 내외빈 소개 : 강현수(충남연구원 원장) - 축사 : 허승욱(충청남도 부지사) 김홍장(당진시 시장) 이재광(당진시의회 의장)

□ 학술 세미나

시 간	주 요 내 용
제 1 분 과	사회 : 송두범(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발표 1] 15:00-15:20 한중 지방 차원의 관·산·학 교류협력 방안 - 충남 당진시와 중국 허베이성 탕산(唐山)시를 대상으로 (강희정,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 원장)
	[토론 1] 15:2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홍거(주한 중국대사관 교육참사) · 구자익(한중교육교류협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조원갑(충남도 정책기획관) · 남수중(공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발표 2] 15:50-16:10 철강도시의 미래와 발전방향 (홍원표, 충남발전연구원 미래연구팀장)
	[토론 2] 16:10-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철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성별 연구팀) ·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오광진(한국경제신문 부장, 중국전문기자) · 김덕주(당진시 안전자치행정국장)
16:40-17:00	Coffee Break
제 2 분 과	사회 :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대(對) 중국교류 및 사업추진 경험 사례 아산시 대중국 교류현황 (이현우, 아산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보령머드 “중국경제” 속으로 (최철구, 보령시 기획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군 중국교류업무 담당자 종합토론
17:30 -	폐회

II. 기념학술 세미나

지방 자원의 한중교류 협력방안

I. 제 1분과 좌장 : 송두범 단장(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 한중 지방자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 충남 당진시와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를 중심으로

강희정 원장(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

|| 철강도시의 미래와 발전방향

홍원표 팀장(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

II. 제 2분과 좌장 : 박인성 팀장(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 아산시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이현우 주무관(아산시청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 보령머드 “중국경제” 속으로

최철구 주무관(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제 1 분과

제 1 주제 : 한 중 지방자원의 관 · 산 · 학 교류 협력 방안 - 충남 당진시와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를 중심으로 (강희정 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장)

제 2 주제 : 철강도시의 미래와 발전 방향 (홍원표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 좌장 :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 시간 : 15시 - 16시 40분

||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 협력 방안**
- **충남 당진시와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를 중심으로**
강희정 원장(한밭대학교 국제교류원)

- Contents -

1.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2. 한국 충청남도 당진시
3.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협력 모델
4. 탕산시-당진시 교류협력 SWOT 분석
5. 관, 산, 학 교류협력 추진 전략

충청중국포럼 출범기념 세미나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협력 방안
충남 당진시와 중국 허베이성 탕산(唐山)시를 대상으로

2015. 05. 21

강희정(한밭대학교 교수)

1.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唐山市)
2. 한국 충청남도 당진시(唐津市)
3.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협력 모델
4. 탕산시-당진시 교류협력 SWOT 분석
5. 관산학 교류협력 추진 전략

唐山 수도권 개발의 핵심축(京津唐 : 베이징-톈진-탕산 개발축)

1.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唐山市)








唐山

一座凤凰涅槃的生态城市
Tangshan: A Phoenix Incarnated Ecological City

一座创造奇迹与梦想的城市
Tangshan: A City Creating Miracles & Dreams

世界十大港口—唐山港
World's Top 10 Seaports—Tangshan Port

世界文化遗产—清东陵
World Cultural Heritage—East Qing Dynasty Tombs

唐山湾国际旅游岛
International Tourist Islands
Tangshan Bay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中韩可持续发展研究中心 설립경과 및 조직 구성>

1. 설립경과: (국립)한밭대학교 중국통상전략연구소와 중국과학원
탕산과학발전연구원 MOU 체결 (2011.1.3) - 중국과학원
정책연구소 합작기구 설립 비준 통지 (2011. 5) - 현판식
및 허베이성 수출합작 상담회 개최 (2011.9.16)
2. 조직 (탕산과학발전연구원): 후진타오주석의 과학발전관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년 <중국과학발전보고>를 출판하는 중국내 녹색경제
연구 총괄기구(주요 참여기구 및 인원: 중국국무원참사,
중국과학원 정책연구소장, 하북성 부성장, 하북연합대학
서기 등으로 구성)

唐山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国家级创业中心

The National Innovation Service Center

唐山国家高新区是唐山市自主创新能力最强的区域，集中了唐山市50%的高新技术企业、90%的软件企业。高新区国家级创业中心拥有6万平方米的孵化场地，规模为全市最大、全省领先，近年来孵化出了一批在全国具有影响力、位居行业龙头的科技企业。

Tangshan National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enjoys the strongest independent innovation capacity in Tangshan city, which has gathered 50% of the new & high-tech companies as well as 90% of the software companies in Tangshan. The National Innovation Service Center covers an area of 60,000 m² for incubation, which serves as the largest incubator in the city and leading incubator in the province, and many national famous and industrial leading scientific & technological companies started to emerge in recent years.



软件园

The Software Park

唐山国家高新区软件园项目总投资4.7亿元, 占地52亩, 建筑面积10万平方米, 主要用于接纳软件、物联网、文化创意等战略性新兴产业, 目标是打造全省最大的软件和服务外包产业基地。

The Software Park Project in Tangshan National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with the total investment of RMB 470 million, floor area of 34,667 m² and construction area of 100,000 m², is mainly to home the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as software industry, Internet of Things,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etc. The project is aimed at building the biggest software and service outsourcing industrial base in Hebei province.



2013 Tangshan Green Hi-Tech Fair

중국 탕산 <중한고신기술상용화센터>
개관식 및 한·중 녹색기업 수출합작 상담회



2013년 10월 25일(금) 오전 9:30 ~ 12:00

중국 허베이성 탕산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중한고신기술상용화센터 개요

◆ 설립 목적

-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국제화, 차이나 비즈니스 글로벌 인큐베이터, 기술이전 및 한·중기술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

◆ 주요 특징

- 중국과학원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협작 및 시장 개척 지원, 허베이성 및 탕산시 정부 차원의 시장활성화 지원, 한국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영 및 법률자문, 통번역 서비스 등 지원
- 한중 글로벌 산학연(관산학) 기술협작 시범구 및 거점기지로서 중국내 협력 기관 및 기업의 발굴,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상용화, 한·중기술협작의 새로운 모델 탐색, 지역 정부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현지시장의 시범사업 참가 및 시장 확대 모색 등
- 기업경쟁력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 임대료 1~3년간 면제(세부규정 10월중 발표예정), 현지 임대료 절반수준의 컨설팅 비용(관리운영비: 중국 현지 경영, 법률, 금융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통번역 지원 등)으로 진출기업의 부담 절감 및 현지지원기능 강화, 상품 및 기술 전시장, 서비스센터 및 회의실 공동 활용(15~17층 및 1층 전시장 등 약 4,000평방미터 규모)

중하고신기술상용화센터 운영모델

◆ 기본 개요

-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센터와 탕산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인큐베이터센터가 합작하여 <중하고신기술 상용화센터>를 건립
-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센터와 (사)한국산학연협회, (사)한중미래협회와 합작하여 중하고신기술 상용화센터를 <한·중 산학연 녹색기술합작 시범구>로 육성

◆ 운영 모델

-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센터는 한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및 입주기업의 중국내 상무활동 지원과 성공적인 기업모델 정착을 위하여 10여명의 한국기업 비즈니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차이나 비즈니스 컨설팅센터>(China Business Consulting Center)를 법인 등록한 후, 고차원의 전문화된 원스톱 상무서비스 제공
- <차이나 비즈니스 컨설팅센터>(韓商企業諮問中心)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하고신기술상용화센터>에 입주한 한국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관리운영비(일정기간 임대료 무료, 컨설팅 비용 및 월 관리비 포함 / 세부 조건은 심의중)를 받아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중국내 비즈니스 활동 지원

◆ 비전 및 전략

- 탕산 <차이나 비즈니스 컨설팅센터>는 베이징, 칭다오, 쑤저우, 다롄 등 중국 연해지구의 한국기업 집중지에 있는 <차이나 비즈니스 컨설팅센터> 모델을 비교 분석한 후, 가장 최적화된 모델의 개발을 통하여 창신적이며 독보적인 기구로서 탕산 한국기업 투자유치 모델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 추구
- <중하고신기술상용화센터>에서는 먼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급 정책지원, 전문화된 컨설팅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중국시장 개척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향후 지속발전형 성공모델 추구의 일환으로, 탕산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적정 토지 제공과 하이테크형 공단 건립을 통하여 <한국녹색과기원>(Korea Green Science Park) 건립 예정
- 중국정부는 탕산 국가급 <초페이덴신구>(曹妃甸新區)를 90년대 상하이 푸둥신구, 2000년대 텐진 빈하이신구 개발에 이어 2010년대 수도권 개발의 핵심축(京津唐 : 베이징-텐진-탕산 개발축)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탕산시는 2010년 중국 10대 녹색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중국의 대형제조업 거점기지, 녹색경제 및 순환 경제 시범구로 지정
- 탕산 국가급 <초페이덴신구>(曹妃甸新區)에는 중국내 최대 철강수출 항구가 입지하여 있고, 신구내의 7성급 호텔에서는 각종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신구내의 <중·일 중소기업 생태원>은 최근 <중·일·한 중소기업 생태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탕산진출 한국기업의 최적진출 후보지로 부상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중국측 | 주임 류쉐환(劉學謙)

중국과학원 탕산과학발전연구원 부원장
〈중국과학발전보고〉 편집위원회 부주편

한국측 | 주임 강희정(姜熙丁)

(사)한중미래협회 이사장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중한고신기술상용화센터〉 〈한·중 산학연 녹색기술합작 시범구〉
탕산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인큐베이터센터 (사)한국산학연합회 (사)한중미래협회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한국사무국

China Business Consulting Center (韓商企業諮問中心)

탕산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탕산 국가급 〈초페이덴신구〉(曹妃甸新區)
〈한국녹색 과기원〉(Korea Green Science Park) 〈중·일·한 중소기업 생태원〉

17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전략과 비전 : 중국 탕산 1차 10개년 중한녹색 프로젝트>

1. 1·3계획 (2011~2013년) : 추진기구 설립(中国科学院中韩可持续发展研究中心) 및 거점 인프라 구축. 〈中韩高新技术转化基地, 中韩产学研绿色技术合作示范区 (2013)〉 건립. 진출기업 법인설립(办企) 및 인큐베이팅(唐山〈韩企咨询服务中心〉 : China Business Consulting Center).
2. 2·3계획 (2014~2016년) : 기업별 현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기업별 모델 탐색 및 성과도출. 중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확대 지원. 기업규모 성장(J-V, M&A) 및 공장설립(办廠) 지원(并在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建设 〈韩国绿色科技园 (2015)〉 : Korea Green Science Park).



중국과학원 중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전략과 비전 : 중국 탕산 1차 10개년 중한녹색 프로젝트>

3. 3·3계획 (2017~2019년) : 경쟁력있는 Global Green Venture의 증전기업 육성. 唐山国家级曹妃甸新区 <中日韩中小企业生态园> 内 <韩国绿色科技生态园(2018)> 건립 및 중국내 핵심 거점기반 구축. R&D, 생산, 중국내 유통, A/S, 수출의 현지 통합형 경영체제 구축.
 4. 사업 총괄 및 분석기간(2020년). 2차 플랜 설정 : 1차 10개년 계획기간 (2012~2020년) 분석 및 2020년 하반기 총괄 백서 발간. 2차 10개년 계획 (2021~2030년) 수립 및 세부 운영 프로그램 설정 등.
- 주관 및 지원 : 중국국무원, 중국과학원 정책연구소 및 중한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허베이성 및 탕산시 인민정부, 탕산시 국가고신기술산업개발구, (사) 한국산학연합회, (사) 한중미래협회, 탕산 진출기업 등



2. 한국 충청남도 당진시(唐津市)

- 서해안 대중국 교류의 新관문으로서의 위상 제고 추진
- 철강산업 기반, 농수산업 발전의 종합 도시경쟁력 강화
-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 및 미래전략산업 적극 추진
- ‘2030 장기 플랜’에 기초한 장기 발전계획 추진
- 중국통상 및 투자유치 협작을 위한 로드맵 구축 추진

21

3. 한중 지방차원의 관산학 교류협력 모색

- 한중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 체결(교류 인프라 구축)
- 상공회의소 차원의 교류협력 체결(당산 450여개 기업)
-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교류(하북연합대학, 당산대학)
- 관산학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교류 네트워크 강화

22

4. 탕산시-당진시 교류협력 SWOT 분석

Strength

- 지리적 인접성 및 도시간 상호 보완성 구비
- 연해 항구도시로서의 물류 네트워크 기반 보유
- 철강산업 기반, 농수산업 교류 및 합작 잠재력
- 친환경 녹색도시 및 미래 전략산업 지향

23

Weakness

- 수도권과 경쟁 구도, 중국투자 유치 기반 취약
- 경제성장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투자유치 부족
- 대중국 수출입 및 투자합작에 대한 로드맵 보완
- 탕산시와 당진시 간 항공, 해운 직항노선 결여

24

Opportunity

- 한중 FTA 시대의 개막에 따른 최적 교역환경
- 중국기업 한국투자 증가, 한중합작 필요성 증가
- 사업환경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선도지역 추진
- 탕산시의 대한국, 당진시의 대중국 교류 의지

25

Threat

- 중국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 격화
- 투자유치 선도지역에 비해 정책 및 인프라 열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통상인력 부족
- 최적 한중교류 추진 모델 및 전략 강화 필요

26

5. 관산학 교류협력 추진 전략

단계	기간	추진전략
1단계	단기	적극적인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 수립
		지방정부 차원의 상호 교류협약 추진
2단계	중기	관산학 추진 주체별 상호 교류 촉진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및 합작 추진
3단계	장기	중국투자유치 확대 및 인프라 구축
		한중 전략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27

|| 철강 도시의 미래

- 홍 원 표 팀장(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 -

- Contents -

1. 당진시의 변모과정과 현재 모습
2. 당진시가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이유
3. 당진의 저력에 대한 재인식
4. 젊은 도시 당진의 진취적 발전전략
5.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6. 당진의 액션플랜 제안1,2,3,4,5

철강도시의 미래와 발전방향

2015.5.21

홍원표(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발표의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충남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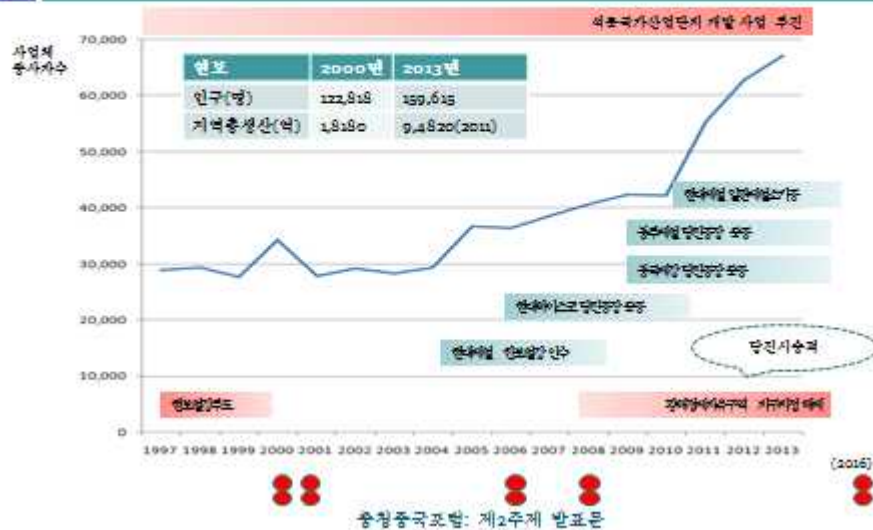
2

1. 당진시의 변모과정과 현재 모습
2. 당진시가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이유
3. 당진의 저력에 대한 재인식
4. 젊은 도시 당진의 진취적 발전전략
5.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6. 당진시의 액션플랜 제안1, 2, 3, 4, 5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1-1 당진시의 변모 과정

3



1-2 당진시의 현재 모습

4

○ 당진시는 농어촌에서 농어촌 병존 제조도시로 발전

- 인구 유입은 수도권이 약52% 차지('10-'12)
- 농가인구 지속 감소: 48,827('00)→35,729('10)
-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

토지이용	1987	2012	증가율
도시지역(hm ²)	33.2	88.8	80%
대지(hm ²)	14.4	20.1	40%
공장(hm ²)	4.4	15.8	258%
도로(hm ²)	15.8	28.4	58%

-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위약

구분	업종	업종	비율
농림, 임업, 축산업	10	(34.3)	105 (34.3)
제조업	18	(34.4)	347 (34.4)
서비스업	6	(34.4)	74 (34.4)
서비스업 중 서비스업	23	(34.4)	127 (34.4)
서비스업 중 서비스업	2	(34.4)	22 (34.4)
서비스업 중 서비스업	24	(34.4)	344 (34.4)

출처: 대전고용노동청(2014)

○ 당진시는 전국 제2의 철강도시로 발전

- 전국 철강산업의 지역 간 비교



- 제조업 종사자에서 금속제조 비중 56%

순위	산업종류	종사자수	비율
1	1차금속제조	8,788	41.8%
2	금속가공제품제조	3,045	14.5%
3	자동차및트럭제조	2,287	10.5%
4	철강제조	1,338	6.3%

출처: 대전고용노동청(2014)

2. 당진시가 미래에 관심을 갖는 이유

5

- 철강산업의 경쟁력
- 과거 철강도시(산업)의 성쇠
- 수도권규제완화
- 중국경제의 부상
- 미래트렌드의 도전

[별 차이나 쇼크] 같은 중국을 철강, 국내로 쏟아져 - 국산 (鐵鋼)은 후에 철강

원래

경제 2014/10/11 09:24

중국철강산업

한국 조강생산 4개월 연속 감소 - 수요 정체 지속

적자 누적... 동국제강, 포항 2후판공장 폐쇄 검토

경제 2014/10/11 09:24

장시 아래 최대업기 동국제강, 본사 폐업타워 매각(종합)

동국제강 2014/10/11 09:24

철강 도시에서 문화 산업 도시로 변신한 세월도 - 이전 뉴스 / 10/11/14

"철강도시 패스트버그 역으로 부활 ... 포항, 교훈 삼아야"

경제 2014/10/11 09:24

남부대교 개통 10주년 기념

철강도시의 '재탄생' 거대한 이유란 무엇일까

경제 2014/10/11 09:24

총 80 도시 시가지 물려받은 철강 도시 살아있는 생체 도시로 거듭나

스포츠 2014/10/11 09:24

"당진시"

[제조업 붕괴...한국경제, 심장이 식어간다] 신종 철

강도시 당진 '과도기' 진입

경제 2014/10/11 09:24

[제조업 붕괴...한국경제, 심장이 식어간다] 당진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해야

경제 2014/10/11 09:24

동부제철, 당진열연공장 생산 중단

경제 2014/10/11 09:24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2-1. IMF 시기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6

- 한보철강
 - 1997년 부도 2004년 법정관리, 2004년 현대제철에 매각, 고용이 1,350명(1997)에서 630명(2003)으로 감소
- 삼미특수강
 - 1997년 부도, STS CR sheet division이 1999년 INI Steel에 인수, 특수강 분야는 포스코에 인수되어 1997년 특수강(Specialty Steel)으로 개명, 스테인레스철선과 부용합과이프에 집중 생산
- 기아특수강
 - 1993년 군산 특수강단지에 투자, 1997~2004년 기간 부도 및 법정관리, 2004년 세아주회사가 인수하여 세아베스틸로 개명
- 구조조정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 부도후 구조조정, 해고, 대규모 채부분이행, 장기간 법정관리, R&D등 투자미흡
 - 관련 산업계가 인수 후 성공적 전환과 강한 성장(필연적 결과는 아님)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2-2. 철강산업 2차 구조조정 임박

7

- 철강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독수의 수혜업종
- 중국철강업체의 과잉생산으로 저가수출 강화 → 한국업체 타격
- 철강업체는 “연착륙론” 제기
- 중국과의 경쟁에서 철강산업은 “경합” 업종으로 분류(서동혁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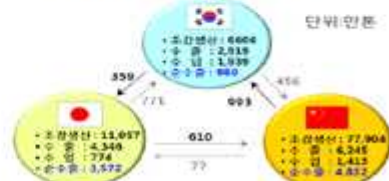


[그림]한중일 과잉생산능력 연도별 추이(출처:장창호)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Unit: Mt)	2008	2009	2013
AMC(Lux)	48.9	101.3	81.2
NSIC(Lux)	32.8	37.5	47.8
Hubei(China)	18.1	35.3	42.8
Eastern China	22.7	16.4	42.7
POSCO(Korea)	30.8	34.7	38.8
WISCO(China)	13.5	27.7	36.4
Shagang(China)	12.0	25.3	32.5
Shougang(China)	10.4	12.2	31.4
JFE(Japan)	28.8	33.0	30.4
Ansteel(China)	11.8	16.0	30.2
Hyundai(Korea)	8.2	9.8	17.1

[그림]주요 철강업체 생산능력 변화 추이(출처:장창호)



[그림]2013년 한중일 철강주력수치(출처:Kim)

2-3. 철강도시 성쇠의 역사

8

- 수 많은 사례들: 셰필드(영), 피츠버그(미), 뒤스부르크(독), 빌바오(스)...
- 많은 철강도시가 성장 후 쇠퇴의 길을 걸었고 지역경제 또한 침체를 겪었다
- 철강도시들은 쇠퇴 전후하여 대안 모색: 생태도시, IT도시, 레저도시, ...
- 철강산업은 사양산업인가
 -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일인당 철강소비는 감소(우리나라는 2008년 철강 피크 경과)
 - 철강산업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경향에 큰 타격을 입을 것
 - 철강산업은 수요가 왕성한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한다: 사양산업이 아닌 경쟁력 상실
- 철강산업은 지역에 있어서 “바오밥”인가?
 - 환경문제: CO₂, SO_x, 본진, 송전탑, 폐열,...
 - 주거의 질: 대규모 강제산업이라서 타 산업업종이 입지하는데 불리하다는 주장
 - 에너지다소비업종 CO₂배출 등 심각
- 그런데, 당진시는 가장 젊은 철강도시가 아닌가?
 - 최신의 공법과 설비를 도입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선행 말한다 하더라도 당진제철소는 가장 늦게 말하는 곳이 될 것이다”(2014. 당진제철소 직원 인터뷰)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2-4.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

9

-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진시의 기업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충남 북부(천안, 아산, 당진, 서산)는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아 성장한 지역
 -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러한 반사이익을 줄이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신규입지기업이 줄고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
- 수도권 규제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최근 현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로,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음
 - 평택고덕신도시, 판교테크노밸리 등은 대표적인 구체적 동향임
- 그런데, 당진시의 매력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 충남도 투자유치실적은 비수도권 3년 연속 1위 기록(충남'14.3 보도자료)
 - 충남의 북부는 계획입지가 아닌 자연입지에 의한 기업유치가 대부분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2-5. 미래트렌드와 철강산업

10

- 기후변화, 저성장, 지식경제, 글로벌화, 신흥국의 부상 등 미래의 트렌드는 당진시에게 도전이 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규제 강화
 - 저성장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 지식경제의 부상에 따른 단순제조업의 몰락
 - 생산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투자 해외이전
 -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에 따른 산업경쟁의 격화
-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는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환경규제의 강화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및 지역 환경문제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국내 철강회사는 이미 국내수요충족률이 아니고 수출을 통해서만 살 수 있음
 -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 해외수출
 - 철강산업의 R&D는 생산현장과 유리되기 어려운 상황임
 - 현대제철 기술연구소(당진), 동국제강 중앙기술연구소(포항), 동부제철기술연구소(당진)
 - 산업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길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있음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지금 당진에게 필요한 두 가지

11

- 선견지명의 통찰
 - ▣ 당진의 저력에 대한 재인식 필요
 - ▣ 젊은 철강도시 당진시의 진취적 발전전략
 - ▣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 담대한 발전전략과 액션플랜(제안)
 - ▣ 당진시 철강산업 전문가 확보
 - ▣ 철강 관련 R&D 기관 인력 유치
 - ▣ 철강산업의 산업연관효과 극대화
 - ▣ 친환경 산업단지 솔루션 개발
 - ▣ 매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3. 당진의 저력에 대한 재인식

12

- 당진시 입지의 저력에 대한 재인식
 - ▣ 당진 철강산업은 계획입지가 아니라 자연입지의 산물
 - ▣ 다양한 생태계가 교차하는 곳: 해양vs.대륙, 수도권vs.비수도권, 해안 vs.내륙 → 최고의 활력과 생산성이 모이는 곳(滙)
 - ▣ 당진시의 발전은 성장축의 이동을 정확히 반영
 - 서에서 동으로: 세계경제 성장축: 북미, EU → 아시아, 한국경제 성장축: 남동 해안 → 서해안
 - 북에서 남으로: 생산거점이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이동, 당진시는 탁월한 항만 입지 여건 보유 * “충남은 탐나는 도(道)다”
 - ▣ 당진시를 수도권 외곽지역일 뿐 아니라 “해양 당진”으로 인식해야
- 철강산업의 저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
 - ▣ 철강산업은 강력한 전방산업효과를 가지고 있음: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등
 - ▣ 지금 당진 철강산업은 전방산업효과를 아직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음
 - ▣ 당진시는 “젊은 철강도시”로서 가능성이 많은 도시임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4. 젊은 도시 당진의 진취적 발전전략

13

- 당진은 성장중인 도시로서 발전기반 양호
 -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의 전반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
 - 8개산업도시의 영역별 순위도 상위권임(장철순 외)
- 당진시에게는 시간과 여력이 있음
 - 당진시 철강산업은 토대한 구조조정을 극복할 여력이 있음: 최신설비와 공법 적용으로 생산성이 높은 상황
 - 특히 현대제철은 현대기아그룹 및 방계기업간 협조를 통해 침체 극복가능성 큼
- 입지 및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추진 필요
 - 해양 당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전략 마련 필요
 - 철강산업의 전방산업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 구사 필요

【표】산업도시의 영역별 순위

순위	영역	영역	영역	영역	영역
1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2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3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4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5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6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7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8	충청	전라	전라	전라	전라

자료: 2010년 12월 15일 현재
 1.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광역시, 충청광역시, 충청광역시, 충청광역시
 2.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광역시, 충청광역시, 충청광역시, 충청광역시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5. 위협을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

14

- 철강도시가 직면하는 문제는 대부분 산업도시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임
 - 철강도시 등 산업도시의 에너지다소비, 환경문제 등은 많은 도시 특히 경제성장지역인 아시아 산업도시들의 당면과제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국제적 수요가 많으며 EU 등 지역에서 이미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ex) EUM2RES
- 친환경 지역산업시스템 솔루션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임
 -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단위가 아닌 관·산·학의 협력을 통해서 구축 가능 → 지역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부각
 - 제품의 수출이 아닌 솔루션 패키지 수출은 한국 수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음 ex) 단일 공사수주에서 해외 신도시개발 프로젝트로의 전환
 - 또한 이는 지방정부 외교의 핵심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M2RES is a project co-funded by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Programme "South-East Europe 2007-2013". The goal is to recover marginal areas (landfills, quarries, open cast mines, former military areas, contaminated sites, etc.) through investments in renewable energy sources (photovoltaic, wind, biomass, geothermal, biogas, etc.).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6-1. 액션플랜 제안 1: 당진시 철강산업 전문가 확보

15

- 철강산업과 지역경제의 유기적 협력과 결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이러한 전문인력은 산업과 지역의 상생을 목표로 함
 - 당진은이 분야에서 모범 사례 있음 ex)현대제철지원팀
- 지역과 철강산업의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 철강산업(기업), 철강도시 등의 발전전략과 동향연구를 전담하여 당진시 발전에 참고
 - 장기적으로 철강기업뿐 아니라 지역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지난한 과정

[당진현대제철지원팀 운영]
-2004년 당시 당진군은 현대제철의 한보철강 인수부터 행정조직 내 '현대제철지원팀'을 가동해 인·허가 등을 지원
-이후바 지역에 뿌리둔 내린 '영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음

[현대제철 상생지원팀 운영]
-상생지원팀은 마은철강사업과 농민기 일손돕기, 지역단체 등기등 비롯해 지역사회등 위한 봉사활동 및 마을단체 나들이 행사 지원 등 인근 마을과 기업이 상생할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6-2. 액션플랜 제안 2: 철강 관련 R&D기관 인력 유치

16

- 현재 당진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R&D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현대기아차그룹의 철강연구소(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기아자동차 등), 동부제철 기술연구소도 당진에 입지
 - 지역차원에서 신성대학에 제철학과 설립, 합덕제철고 설립 등 인력양성정주
- 국내 유수의 철강 관련 국책연구소 당진 유치 필요
 - 신성대학 제철학과, 합덕제철고는 인력양성의 일환이고 R&D역량 제고는제한적
 - 국내 유수의 국책연구소들 분원 방식으로 당진에 유치하여 R&D의 본격화 필요
 - 유치대상은 현재 동남권에 있는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
* 동남권 연구소들은 수도권 인접 입지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당진을 소재소재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
 - 중국과의 산업경쟁에서 조립가공에서 소재부품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 필요
 - 중앙, 충남도의 산업경제정책 방향과도 부합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6-3. 액션플랜 제3: 철강산업의 산업연관효과 극대화

17

- 철강산업의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음
 - 후방산업효과는 원자재(철광석, 철스크랩, 코크스 재료 등) 수입이 대부분인 상황
 - 전방산업효과 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도 미미한 상황
- 전방산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박수리, 자동차 등 산업의 유치 모색 필요
 - 동남권에 발달한 선박건조와 구별되는 선박수리업을 유치하여 해양당진 본격화
 - 선박수리업은 철강업뿐 아니라 지역의 관광, 휴양과 결합하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선박개조(동력기관 교체)로 발전하는 전략 모색 필요
 -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한층이 교차 진출할 중국의 소형트럭, 농기계 등 수출용 기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후방산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철광석 수출 다국적기업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 있음
 - 현재 철광석, 철스크랩은 브라질, 호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철광석 회사는 원료의 수출뿐 아니라 가치사슬의 downstream으로의 진출을 모색
 - 당진은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로서 그 가치가 큰 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6-4. 액션플랜 제4: 친환경 산업단지 솔루션 개발

18

- 철강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고로, 전기로의 운영과 후공정(압연 등)에 막대한 에너지 소모
 - 이에 따른 CO₂, SO_x, 분진, 폐열 등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단일 요소기술이 아닌 솔루션 패키지化 필요
 -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신재생에너지 적용, 부생물질 상용화 등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과 결합이 필요
 - 이러한 시스템 패키지는 단일기업보다 여러 기관의 전소시범 방식 추진이 적절
 - 지역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 특히 그 전소시범의 구성과 유지에 일익을 담당
 - 기업은 경험 축적과 사업실적 확보, 지역정부는 도시외교 및 기업지원컨텐츠 확보
- 단, 이러한 노력은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
 - 도 차원에서 현재 주력산업(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의 고도화 중차대합
 -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의 국책사업화 추진: 최근 입법화된 '산업발전법', 입법화가 제안된 '산업도시발전법' 등 흐름에 적극 결합하여 추진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6-5. 액션플랜 제5: 매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

19

- 모든 도시발전의 관건은 창의적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임
 - 창의적 인재는 정주여건이 매력적인 도시에 거주하고자 함
 - 산업도시 특히 중소산업도시는 잦은 인구전출입, 타시도 통근, 주말부부 현상 만연
- 철강산업 발전의 호기를 정주여건 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이 긴급
 - 기업들이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흔치 않으나, 개발초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함: 후기에는 반대 정향이 커짐
 - 따라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역과 철강기업의 상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관건
- 단, 광역적 시각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단계적으로 해결책 모색 필요
 - 당진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한계 명백: 도 차원 또는 아산만 경제권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함
 - 스마트시티, 컴팩트시티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주체계 개선을 추진 *당진 내 불균형발전구조로 인해 매우 지난한 과제임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주요 참고 자료

20

강창오, 글로벌철강산업의 진화와 전망, 2014, S&S Steel Forum(2014.12.11) 발표
 서동혁, 2015, '우리나라 주철산업의 경쟁력 평가와 성장전략', [국토], 2015.4월호, 국토연구원
 염미경, 2004, '철강대기업의 재구조화전략과 지역사회의 대응:일본 키타큐슈와 미국 퍼츠버그의 비교', [한국사회학] 제38집1호, 2004, 한국사회학회
 이동주, 조상현, 김아린, 2014, '한국무역 포트폴리오 다양화 방안: 신성장동력의 발굴-선박수리 시장의 동향', [Trade Focus] Vol.13 No.39, 한국무역협회
 장철순 외, 2014,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Kim Joon Han, 'Assessment and Comparison of Competitiveness in the Steel Industr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2013, 아시아스틸 포럼(Aug.21, 2013)
 Lee, Eun Young, 'Restructuring strategy of Korean steel companies', S&S Steel Forum (2014.12.11) 발표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홈페이지
 당진시청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당진시 통계연보, <http://stat.dangjin.go.kr:8080/stat.do>
 EU M2RES homepage: <http://www.m2res.eu/>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

메일: wonpio@cdi.re.kr

유선: 041-840-1188, 무선: 010-9892-1969

충청중국포럼: 제2주제 발표문

제 2 분과

대 중국 교류 및 사업추진 경험 사례

사례 1 : 아산시 대 중국 교류협력 현황(아산시청)

사례 2 : 보령머드 ‘중국 경제 속으로(보령시청)

- 좌장 : 박인성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시간 : 17시 - 17시 30분

아산시 對 중국 교류협력 현황

아산시 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이현우



contents

1. 아산시 국제교류 개요
2. 對 중국 교류 현황
 - 영성시 (榮成市)
 - 웨이팡시 (濰坊市)
 - 둥관시 (東莞市)
3. 향후 개선 과제

1. 아산시 국제교류 개요

아산시 국제교류 현황

1.아산시 국제교류 도시



1.아산시 국제교류 개요



구 분	국가 / 도시명	체결일	중점교류 분야
자매결연 도시 (2곳)	헝가리 미슈콜츠시	11.11.14	경제·교육·관광
	중국 등관시	12.09.24	경제·교육·문화·관광
우호협력 도시 (8곳)	중국 영성시	05.09.14	경제
	미국 랜싱시	06.02.14	교육
	미국 타일러시	07.04.26	교육·의료
	단자니아 무완자시	07.10.22	농업
	키르기즈스탄 오쉬시	09.03.20	경제·농업
	케냐 키수무시	12.07.16	교육·문화
	중국 웨이팡시	13.07.05	경제·교육·문화·관광
	말레이시아 페달링자야시	14.11.13	경제·교육·문화·관광

1.아산시 국제교류 개요 - 분야별 현황



52%

교류협력 중점분야 :
우호협력 및 자매 결연
▶ 경제·인적 교류분야

★ 교육>인적>경제>결연>농업교류 順
- 2012~14년 아산시 국제교류 자료

1. 아산시 국제교류 개요 - 도시별 현황



48%

아산시 국제 교류협력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지역

★ 중국>케냐>미국>헝가리>말레이시아 順
- 2012~14년 아산시 국제교류 자료

2. 對 중국 교류 현황

- 영성시 (榮成市)
- 웨이팡시 (濰坊市)
- 동관시 (東莞市)

2. 對 중국 교류 현황



산둥성 영성시(山東省 榮成市)

우호협력 : 2005.9.14

면적 : 2,068 km²

인구 : 146만 명

위치 :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현급시

산둥반도의 최동단

한국의 서해와 가장 가까운 도시

특징 : 새우, 조개, 전복, 해삼 등 수산물

기계, 고무, 식품가공 공업 발달

장보고 유적지 적산법화원,

뛰어난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

2. 對 중국 교류 현황 - 榮成市



중국 영성시 대표단 아산시 방문

- 일시 : 2011.10.25~10.26
- 인원 : 영성시 중의원 원장 외 5명
- 목적 : 의료 교류 추진



아산시의회 대표단 영성시 방문

- 일시 : 2012.4.12~4.13
- 인원 : 시의원 등 10명
- 목적 : 문화예술 벤치마킹



2. 對 중국 교류 현황 - 榮成市



榮成市와 2005년 우호협약 체결 이후

1회성·행사참석 위주 방문 교류

▶ 2012년 이후 상호교류 중단 상태

2. 對 중국 교류 현황



2. 對 中 國 交 류 現 況 - 濰 坊 市



아산시-웨이팡시 우호협력 체결

- 일시 : 2013.7.3~7.6
- 목적 : 경제 · 문화 · 교육 · 인사교류



영인농협-수광야채그룹 자매결연 체결

- 일시 : 2013.7.15~7.16
- 목적 : 영인농협-수광야채그룹 농업분야
자매결연, 교류협력 사업 지속발굴



2. 對 中 國 交 류 現 況 - 濰 坊 市



한 · 중 경제협력포럼 및 기업상담회 참가

- 일시 : 2013.9.2~9.5
- 목적 : 영인농협-웨이팡시, 수광야채그룹
교류협력 방안 논의

등관시 · 웨이팡시 무역사절단 파견

- 일시 : 2014.4.3~4.7
- 참가 : 8개 업체
- 목적 : 관내 수출 중소기업 수출상담



2. 對 中 國 交 류 現 況 - 濰 坊 市



영인농협, 수광국제야채기술박람회 참석 및 벤치마킹

- 일시 : 2014.4.19~4.21
- 참가 : 10명
- 목적 : 수광국제야채기술박람회 참석 및 아산맑은쌀 시식회 개최



2. 對 中 國 交 류 現 況 - 濰 坊 市



濰坊市와 2013년 우호협력 체결 이후

경제교류·농업관련 부문 교류협력 확대

▶ 관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보

2. 對 중국 교류 현황



광둥성 둥관시(广东省 东莞市)

자매결연 : 2012.9.24

면적 : 2,465 km²

인구 : 822만명

위치 : 중국 광둥성 중남부

심천(深圳), 광저우(广州) 인접

특징 : 외자기업 유치에 적극적,

대외개방 높은 도시

한국기업 400여 개,

삼성디스플레이 현지공장 입주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둥관시 무역사절단 파견

- 일시 : 2012.7.23~7.24
- 참가 : 7개 업체
- 목적 : 상담회 개최 통한 바이어 매칭 및 시장조사

둥관시 경제대표단 아산시 방문

- 일시 : 2012.12.4~12.8
- 인원 : 당경도 부시장 외 20명
- 목적 : 우호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경제·관광교류 협력방안 협의,
기업체 방문 등)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아산시 경제대표단 동관시 방문

- 일시 : 2013.3.22~3.27
- 인원 : 6개 기업
- 목적 : 우호방문 및 교류협력 강화
(관광협력 협의회 서명, 통상활동)



온천대축제 축하방문단 방문

- 일시 : 2013.10.14~10.18
- 인원 :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등 16명, 관광객 80명
- 목적 : 온천대축제 개막식 참석 · 아산시 홍보영상 촬영 등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아산시의회-동관시인민대표대회 교류협력 MOU 사전답사

- 일시 : 2013.11.11~11.17
- 목적 : 동관시 인민대표대회와 교류협력 MOU 체결 협의

아산시의회-동관시 인민대표대회 우호협력 MOU 체결

- 일시 : 2014.1.6~1.12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아산시-동관시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 일시 : 2014.3.10~8.31(6개월)
- 인원 : 상호 1명씩 파견(김진태, 유순)
- 목적 : 공무원 인적 교류

동관시·웨이팡시 무역사절단 파견

- 일시 : 2014.4.3~4.7
- 참가 : 8개 업체
- 목적 : 관내 수출 중소기업 수출상담, 판로 개척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동관시-아산시 미술작가 교류전 협의

- 일시 : 2014.7.21~7.25
- 목적 : 동관시와 미술교류전 추진

동관시 주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참가

- 일시 : 2014.7.22~7.29
- 참가 : 3개 도시(동관, 아산, 부페르탈)
- 인원 : 24명(중·고생 21명, 인솔 3명)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동관시 기업설명회

- 일시 : 2014.9.1
- 참가 : 하우 부시장 외 6명,
아산시 30개 수출 중소기업
- 목적 : 동관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국제박람회 홍보 및 참가 협조



아산시-동관시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

- 일시 : 2014.10.13~2015.10.12
- 인원 : 김승섭(1년) / 진원(3개월)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동관시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참가

- 일시 : 2014.10.31~11.2
- 인원 : 아산시 10명, 17개 수출중소기업,
농협관계자 3명



동관시 창평진(常平镇) 대표단 방문

- 일시 : 2014.11.3
- 인원 : 황경휘 주석 외 10명
- 목적 : 아산시-동관시 우호협력 확대



2. 對 중국 교류 현황 - 东莞市



- ① 东莞市와 2012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경제부문 교류협력 증대
 - ▶ 경제대표단 및 무역사절단 파견
- ② 문화교류 기반 구축
 - ▶ 온천대축제 참가, 미술교류전 개최 등
- ③ 상호 인적교류 추진
 - ▶ 공무원 파견근무, 청소년캠프 참가 등

아산시 對 중국 경제교류 실적

2. 對 中國 교류 현황 - 무역사절단 참가업체수



2. 對 中國 교류 현황 - 무역사절단 계약추진건수



2. 對 중국 교류 현황 - 무역사절단 계약추진액



단위 : 천 달러



對 중국 무역사절단의
계약추진액 급격한 증가

★ 중국 > 동남아 > 중동 順

- 2012~15년 아산시 무역사절단 자료

아산시의 중국 교류 특징

① 경제 교류 위주

- 기업설명회, 무역사절단의 중국 비중이 매우 큼
- 무역사절단의 화장품, 생활용품 계약추진액 증가세

② 인적 교류, 문화 교류 등의 다른 분야로 확산

- 공무원 상호파견, 청소년캠프 참가 등 인적 교류 시작
- 아산-동관시 미술작가 교류전 개최 등 문화 교류

3. 향후 개선 과제

3. 향후 개선 과제



① 교류대상 지역의 다변화 및 교류의 현실화

-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최근 교류 도시 중심으로 전개
- 교류국가의 편중화 현상(전체 교류도시의 중국 비중 48%)
- 교류도시의 다변화, 다양화 필요(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② 실질적인 교류 영역 확대

- 축제 · 행사 참여 등 기관간 교류 뿐만 아니라
- 농 · 특산물 홍보 및 관측 활동, 무역사절단 파견 등 경제교류
- 공무원 파견근무, 청소년캠프 참가 등 인적 교류 확대

3. 향후 개선 과제

③ 교류 부진 도시와 관계 재정립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추진 후 교류 부진한 도시와 관계 재정립
(ex : 중국 영성시)
-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교류 목표의 설정
-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적 교류 가능한 콘텐츠 개발 필요

④ 기업수요 맞춤형 해외통상 정책 추진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위주의 국제교류에서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또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등 통상정책 중점

3. 향후 개선 과제

⑤ 국제교류 전담부서의 일원화 및 독립화

- 국제교류 증가 vs 실무 인력 제자리(자치행정과 대외협력팀 3명)
-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 보유 행정인력 부족
- 국제교류 관련 예산의 내실화 필요
(상호 도시간 단순방문 → 인적 교류·문화예술 교류 등의 사업으로
교류영역과 범위 확대 필요)

⑥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범위의 확대

- 지방과 관련된 국제기구가입, 국제회의 참가 등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가입 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보령시 국제교류 개요



1 미국 : 1도시

- 워싱턴주 쇼어라인시(2003)

2 일본 : 2도시

-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2002)

- 후쿠이현 타카하마초(2007)

II 중국 교류 현황



1 상해시 청포구(자매)

톈진시 빈해신구(우

2 호)

3 교류업무 사례

- ① 우호교류
- ② 자매교류
- ③ 일정표, 핸드북
- ④ 보도자료
- ⑤ 기사내용

1. 우호교류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제시 청포구 2009년~2013년 우호교류 의향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제시 청포구는 1999년 4월 26일 양방이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양 시구간의 우호교류사업과 우호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9년~2013년 양방 우호교류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동의식을 달성했다.

1. 연도별 상호방문

제1년 (2009년)

보령시 대표단 청포구 방문 : 4명

청포구 문화교류단 보령시 방문 : 2명

제2년 (2010년)

보령시 경제대표단 청포구 방문 : 9명

청포구 우호협력대표단 보령시 방문 : 2명

제3년 (2011년)

보령시 문화교류대표단 청포구 방문 : 4명

제4년 (2012년)

청포구 정부대표단 보령시 방문 : 10명

제5년 (2013년)

보령시 대표단 청포구 방문 : 9명

청포구 교육대표단 보령시 방문 : 8명

2. 경제부담

교화단의 정비는 양방의 대응한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상호 방문시

방문측은 상대 지역에서의 항공료 혹은 선박료 등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며, 접대를 받는 상대방은 해당 지역 체류기간의 비용을 부담한다. (장소간의 체류는 인원수와 체류기간을 대등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되며, 인원수와 체류기간이 서로 다를 경우 양방의 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교류책임자

본 의향서 교류사업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담당자를 연락 조정책임자로 지정한다.

보령시 기획감사담당관 장일균

청포구 아사관공정부주임 유우영

4. 본 의향서의 교류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방의 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관련 교류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5. 본 의향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대해 국어로 작성되며, 양 시구간의 1부씩을 보관한다. 양 국어 문안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있으며,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충청남도 보령시

시장

申倭熙

2009년 10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장제시 청포구

구장

高

2009년 10월 13일

2. 자매도시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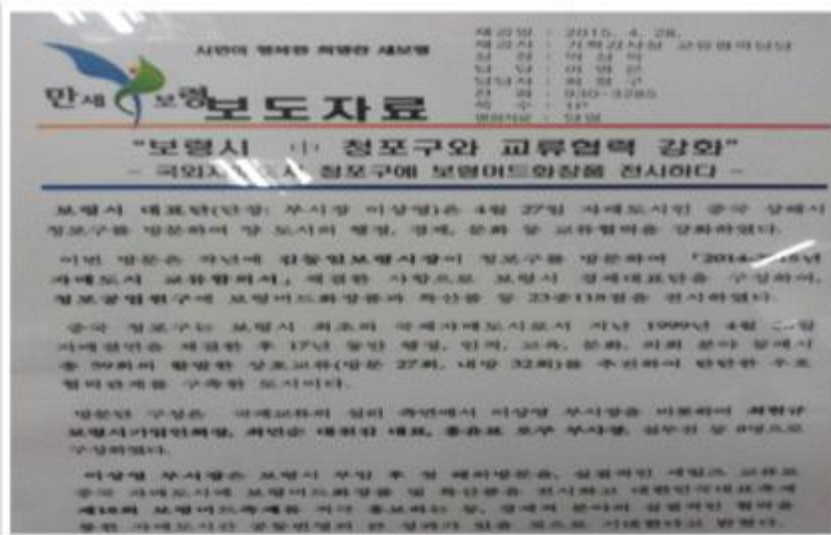


3. 방문계획

일정표, 엔드북 작성



4. 보도자료



5. 기사내용



문화교류

청포구 연극단



경제교류

현장을 찾아서



경제교류

보령 머드화장품, 기업 특산품 전시



경제교류

“화이팅”



경제교류

“기업인 최고”



보령이미지 전달

“미소 친절 청결 운동”



보령시 위상제고

대한민국 최초 축제수출 1호

- 행사명: 중국대련 금석탄 한국보령 국제머드축제
- 기간: 2009. 7. 26. ~ 9. 6. (43일간)
- 장소: 중국 대련 금석탄 해수욕장
- 내용: 15개 프로그램(체험, 전시, 연계행사)
- 주최: 보령시/대련시, 대련개발구 관리위원회 공동
- 성 과: 대한민국 축제문화 해외 전파



- 일시: 2010. 9. 16.
- 공인단체: IFEA WORLD(세계축제협회)
- 평가내용: 인구, 숙박시설, 방문객, 우수축제, 축제지원, 자원봉사자 등 평가
- 평가대상: 신비의 바닷길축제, 천북굴축제, 대하전어축제, 풍기타 축제 등
- 성과: 세계 유명도시와 함께 아시아지역 mud-city로의 부각
- 성과: 영국 에든버러, 호주 시드니,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대독일 지정)



III. 함께 토론 (1)



함께 토론(2)



IV. 결론(발전방안)

1 보령머드화장품

- 중국위생허가 진행중
- 중국 국가식물약품 감독관리국(CFDA)

2 보령김 수출

- 원초 주류생산 및 품질향상 노력
- 중국인이 선호하는 캔김 중국 수출 준비

3 홈스테이 사업 의회 교류사업

- 대천고와 추가각고급중학교 홈스테이 실시
- 보령시의회와 청포구 인대 교류 방문사업

4 기업인 교류

- 보령지역생산품 상설 전시공간 마련
-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 배정은 물론 적극적 중재역할



한인단체 위상제고, 선진사례 벤치마킹

특별한 만남, 특별한 소개

보령시 특별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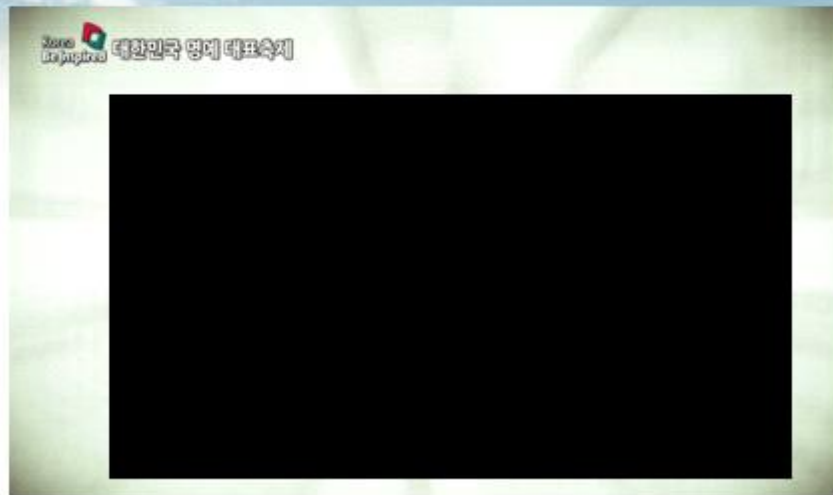
보령머드랜드



보령머드랜드



제17회 보령머드축제 홍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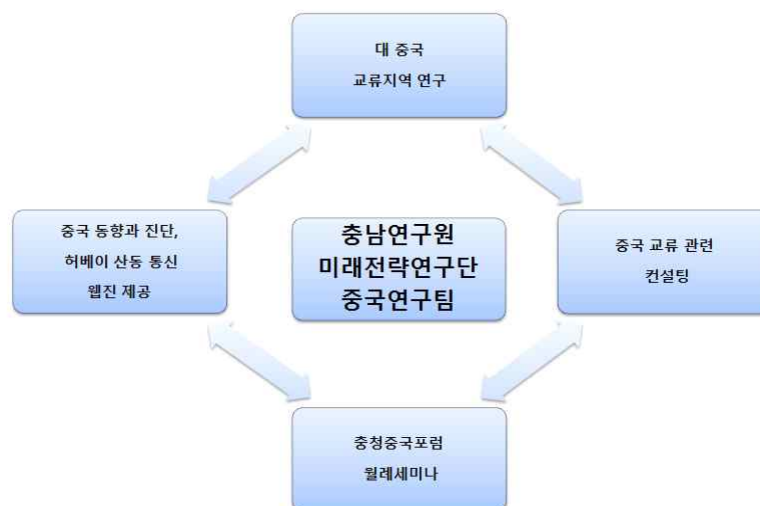


‘충청중국포럼’ 사무국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충청중국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중국포럼’의 목적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중국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그리고 대(對)중국교류 관련 업무추진 경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청중국포럼’은 지방차원에서 대(對)중국교류와 전략을 주도하기 위한 지자체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중국관련 지식과 정보, 경험을 교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은 한편으론 충남도 및 각 시·군의 교류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한편으론 ‘충청중국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자문, 서비스 제공, 월례포럼 개최, 그리고 ‘중국 동향과 진단’, ‘허베이-산둥통신’ 등 중국 관련정보의 정기 발간과 온·오프라인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충청중국포럼’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서,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와 전략을 주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구성원 소개>

박인성. 팀장, 연구위원. 중국인민대학 박사(경제학), 중국 저장(浙江)대학 도시관리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팀 중국지역 연구 담당 역임.

041-840-1169, ispark@cni.re.kr

박경철. 팀원(겸임), 책임연구원. 베이징(北京)대학 박사(사회학),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041-840-1206, kcpark@cni.re.kr

홍원표. 팀원(겸임), 책임연구원. 베이징(北京)대학 박사(지리학),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연구원 중국연구 담당.

041-840-1188, wonpio@cni.re.kr

유광철. 팀원, 연구원. 서울시립대학 석사(도시행정학), 중국인민대학 지역경제연구소 교환연구원 역임.

041-840-1175, yookwang1234@cni.re.kr

MEMO

MEMO